

# 도, 6월 13건 공모선정 587억 확보

### 올해 상반기 88건 공모사업 선정 국비 2574억원 마련... 전년 대비 934억원 증가

전북도는 올해 6월 중 중앙공모사업으로 1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87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도는 올해 상반기 총 88건의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74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 동기(1,640억 원) 대비 93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주요 공모선정 사업 중 창업지원·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창업기업 지원펀드(100억원)'는 탄소, 농생명 등 전북특화산업 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유도 및 유망 중소기업·벤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와 (주)효성이 창업활성화를 위한 투자중심 자금조달 채널로서의 펀드 조성을 통해 투자인프라가 열악한 도내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환경 분야의 도심침수 대응 하수도중점관리사업(269억원)은 도심지역의 침수피해 발생 또는 우려지역이나 공공구역의 수질 악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또는 빗물펌프장 설치·증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도심지역(부안)의 침수가 도민의 인명·재산 등의 피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침수로부터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민 안전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농생명 분야의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56억원)은 기업유치,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인력과 자본이 집중되는 활력 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남원시의 특화자원인 허브산업과 연계한 친환경 화장품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이너뷰티(Inner Beauty)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중 창업기업 지원펀드 사업

은 탄소 및 농생명산업 등 전북도정 핵심사업 추진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창업기업 지원펀드 사업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60% 이상의 투자를 의무사항으로 함으로써 탄소·농생명 분야 등 전북 지역특화전략산업과 관련된 창업 3년 이내의 신생 기업에 집중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북도는 7월에는 5건, 81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공모사업 선정률 제고를 위해 정해진 협조 요청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별 선정 전망분석과 단계별 평가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30대 젊은 농부 동물체험농장 개장

### 남원 오인용(34세) '자연마당' 5년 준비 끝에

남원에 '작은 동물원'이라 불리는 동물체험농장이 들어섰다.

이 동물체험농장은 기업도 행정도 아닌, 개인 농업인이 피땀흘려 조성한 것이다.

30대 젊은 농업인인 오인용(34)씨는 침체된 농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찾아오는 농촌이 필요하다고 판단, 5년 전부터 동물체험농장을 구상·조성하기 시작했다.

4월 오인용씨로부터 동물체험농장을 조성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다.

오씨는 동물체험농장 '자연마당'을 만들었다. 이는 농업에 관광을 접목하겠다는 오씨의 신념이 꼬박 5년 만에 빛을 본 것이다.

이 농장에는 소와 염소·말·타조·앵무새·파충류 등 50여 종의 동물들이 있고, 300여종의 야생화와 수목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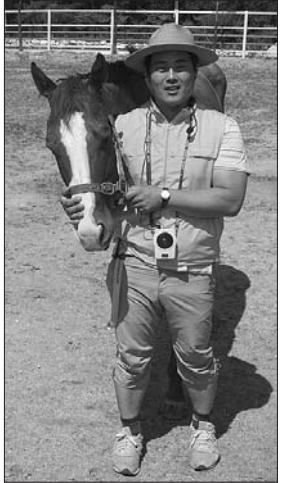
이 곳에서는 동물들에게 먹이를 직접 주는 등 만져보고 체험도 할 수 있다.

특히 오씨는 농장의 환경과 생산과정을 도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농업 해설사' 역할을 자처, 농업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오씨는 "5년 전부터 축사를 개 보수하고 나무와 꽃을 심었고, 불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형물 등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물체험농장을 조성하기까지 애로점도 많았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주변의 걱정은 끊이지 않았고, 행정에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그는 "농장을 조성하면서 행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그렇게는 안되는데요.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였다"면서 "솔직히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공무원의 업무를 위한 행정이라는 걸 많이 느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고령화 돼 가는 농업의 현실에서 젊은 농업인들이 마음껏 종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촌축가는 장가도 못간다는 소리도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농촌을 즐거움과 희망·꿈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침체된 농업을 살려보겠다고 도전장을 내민 오씨는 동물체험농장을 뛰어넘어 '1농가 1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다.

/남원=유영철 기자

## 오늘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

전북도가 5일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을 개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5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선도기업과 예비취업자 간의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26개 업체가 참여하며 관리직과 연구직, 기술직 등 7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행사는 당일 오후2시부터 4시30분까지 이뤄지며, 예비취업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밖에도 구직활동과 직업선호도 검사관, 문서지원관, 사생활영관 등을 운영해 방문하는 예비취업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

## 한지지원센터·전통문화창조센터 전통문화전당으로 이관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행정부,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 발표... 8개 기관 유사·중복기능 조정

전주생물소재연구소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각 일부 기관이 통폐합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전북과 부산 대구 등 8개 지자체의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 발표한 '1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행정부의 조정 기준에 따라 1단계에 미 포함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능 조정 계획이 '지방공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2차 방안에는 전북과 부산의 8개 기관 간 중복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다.

전북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의 한지지원센터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전통문화창조센터를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부산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기능을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하는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능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 간 기능 조정으로 약 2억2000만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기관 통폐합을 위해 강원도 출연 기관인 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산업경제

진흥원을 통합해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1,2단계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행정부 관계자는 "1·2단계를 합할 경우 연간 예산 절감 효과는 연간 276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추진한 1단계 방안에는 21개 기관의 8개 기관으로 통·폐합, 17개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 24개 기관의 기관 내 기능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고민형 기자

## 檢, "옥시 '아이 안심' 문구 고쳤다면 사망자 95% 살렸을 것"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메킷벤지저(옥시) 전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2006년 12월 '아이에게 안심'이라는 가슴기 살균제 문구를 고쳤다면 사망 피해자의 약 95%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 등 7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가슴기 살균제 피해사건 진해 및 수사 경과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측은 "당시 '아이에게 안심'과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문구가 과하다면서 적정량을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해당 문구가 빠졌다면 살균제가 시장에서 버릴 수 없었을 것이고 피해자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8년 피해를 줄일 기회가 더 있었다고 검찰측은 설명했다.

검찰은 "2008년 1월 옥시 측에 모방송사 등이 가슴기당면 인체안전성 자료를 요청했지만 묵살했다"며 "당시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사망 피해자의 약 74%를 살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여름방학 스피치 특강 모집**  
**스피치·응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응변인협회 전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응변인협회, (사)한국응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http://www.ijmaeil.com)